



“태극기 답시다” 3·1절을 앞둔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석곡마을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1운동탑-친일파 동상 ‘30년 동거’

(안용백)

중외공원 내 ... ‘의향 광주’ 낮 부끄럽다 민족문제연구소 수년전부터 철거 요구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에 설치된 3·1운동 기념탑과 친일파 동상이 30년 가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82년 2월 광주 중외공원(당시 광주어린이대공원)에 조성된 안용백(1901~1977년) 동상은 바로 인접한 곳에 광주3·1독립운동기념탑과 안중근 의사 동상 등이 위치해 있다. 동상 주변에는 “경성제국대학 윤리

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조선철학회를 조직하였고 경남 하동군수를 지내고 조국광복이 되면 해에는 경남 중고등학교 초대 교장직을 위시로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전남교육위원회 교육감 등을 역임하면서 후학을 길러내는 데 일생을 바쳤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안용백은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찬양하는 사실을

쓰고 창씨개명에 앞장섰다는 연유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설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안용백이 조선총독부에서 관료로 일하며 1941년 총독부 기관지 ‘조선’에 일본 정신을 체득함으로써 내선일체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잡지에 내선일체와 각종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고 강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안용백은 1958년 제4대 총선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돼 당선 무

효 판결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986년 조성된 3·1운동기념탑 주변에 친일파인 안용백 동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년 전부터 동상 철거를 주장했지만 공원 관리주체인 광주시립미술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나 설치단체의 동의 없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만으로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동상을 세웠다는 기록만 있을 뿐 설치 단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공공기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시설물을 철거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친일 관련 시설물 규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제94주년 3·1절을 맞아 1일 오전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친일파 동상 철거, 또는 공적과 친일행적을 함께 기록한 안내판 세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서명 운동을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00만 자영업자, 오늘 日 제품 불매 결의

‘제2의 물산장려운동’을 표방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달부터 전국에서 벌어진다. 자영업자 6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으로서 국내외에 적잖은 파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금융·유통업계에 따르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80여개 적능단체와 6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1일부터 일본 제품을 완전히 취급하지 않

기로 했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보인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 단체는 3·1절인 1일 파고다공원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걸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연화뉴스

전남서 하룻새 산불 30건

논·밭두렁 소각 주의

또 이날 오후 3시30분께 장성군 동회면 송계리 송계마을 뒷 야산에서도 밭두렁 소각을 하다 불티가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 소나무와 활엽수 등 1ha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영광에서도 이날 오후 묘량면 월암리 장암산 자락과 신천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나 각각 300㎡를 태우고 진화됐다. 아울러 오후 3시에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대가마를 인근 야산에서도 논·밭두렁 태우기가 끊이지 않음으로 1ha의 일야가 됐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 등을 제거해 영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곡성=김계종기자 kjkim@

‘통학버스 편법 강의’ 학점 인정... 대학 꼼수 논란

영암 D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학생 350여명 달해 공무원·시의원 등 다수 포함

영암군의 한 2년제 대학이 3시간 정도의 장거리 통학 학생들을 상대로 버스에서 강의를 한 뒤,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영암 D대학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는 경우 일반인

을 상대로 매주 1회 토요일 강의와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학위를 이수하도록 운영 중이다. 해당 학과와 22주에 걸쳐 일주일에 한 차례 출석해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강의와 먼 거리에서 오가는 학생들을 고려해 버스에서도 강의를 병행해 학점에 포함하는 수업 방식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대학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를 오가는

버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이 시간을 학점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편법 강의로 대학을 졸업한 보령지역 시민이 최근 6~7년간 350여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공무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의 대학 강의를 수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학생 수를 늘리려는 대학과 손쉽게 졸업장을

따려는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측은 이와 관련 “보령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데 3시간이나 걸려 이 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했다”며 “버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모두 학교로 출석해 나머지 강의를 받는 등 학사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유신시절 강의 실형 임영천 조선대 명예교수

36년만에 재심서 무죄판결 받아

유신 시절 강의의 중 발언으로 구속돼 실형을 산 임영천(71)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36년만의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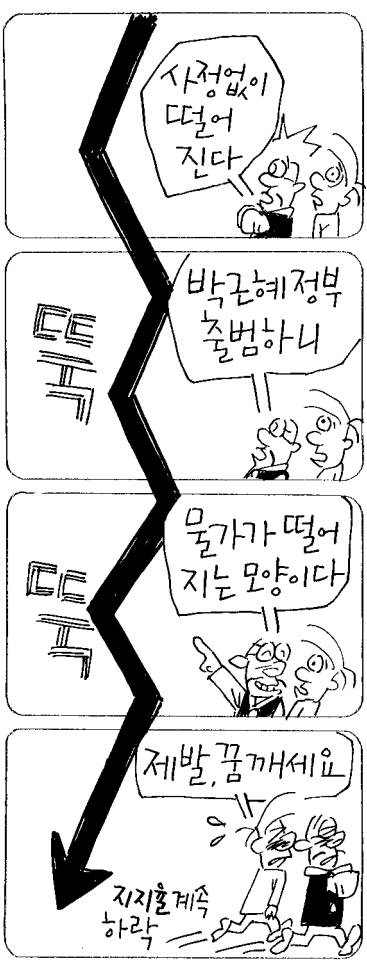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임 교수는 선고유예가 사실상 무죄에 해당한다 해도 법리적으로도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했다. 임 교수는 1977년 6월 강의 중 “북

한은 우리가 식량을 원조해준다 해도 국제 여론이나 체면 때문에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3개월 뒤 구속됐다. 3년6개월을 선고받던 임 교수는 복역하던 중 10·26을 맞아 1979년 말 석방됐다. 그는 이듬해 특별사면·복권돼 조선대에 복직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이후 다시 해직되기도 했다. 1988년에 재직하던 그는 인문대학장을 역임하고 2007년 정년퇴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

가장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광주 관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관산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사건이 일어났다. 보육교사 노모(39·여)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당시 23개월)양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10분 가량 아이를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니원침 (8764) 김장두



광주서 편의점 강도 잇따라

늦은 밤 아르바이트생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새벽 4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편의점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청자켓과 검은 등산복 차림을 한 키 160cm 가량의 용의자 검거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편의점에서도 젊은 남성이 현금 5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교사가 현금인출기 위 현금 슬쩍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찾아가 지갑이 놓여 있던 돈을 슬쩍한 교사가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 ○-지난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대안학교 교사인 김모(36)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관산구 하남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A(여·67)씨가 실수로 두고간 현금 50만원을 가져갔다 은행 CCTV 확인으로 검거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우연히 현금을 보고 견물생심(見物生心)에서 훔쳤다”며 후회.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굴기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